

# 보도해명자료

(19. 6. 27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설비 폐쇄여부는 예비율 뿐만 아니라, 지역계통 여건, 설비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

(서울경제 6.27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정부는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보령 1,2호기의 폐지 일정을 '25.12월에서 '22.5월로 3년 7개월 앞당긴바 있음
- ◇ 설비 폐쇄여부는 예비율 뿐만 아니라, 지역계통 여건, 설비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, 충남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인 설비 예비율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보령 1,2호기를 당장 폐쇄하여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- ◇ 6월 27일 서울경제 <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1·2호기 당장 폐쇄 해도 전력문제 없다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## 1. 기사 내용

- 충남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르면 가동 30년이 넘는 보령 1,2호기를 당장 폐쇄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영향이 없음
- 2018년 기준 설비 예비율이 27%를 넘는 등 적정설비용량보다 7GW 이상 초과한 상태라 설비용량이 1GW인 보령 1,2호기를 당장 폐쇄하여도 수급에 문제 없음

## 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정부는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보령 1,2호기의 폐지 일정을 '25.12월에서 '22.5월로 3년 7개월 앞당긴바 있음
- 설비예비율 뿐만 아니라, 지역계통 여건, 설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령 1,2호기의 폐지시점을 좀 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,
  - 충남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인 설비 예비율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보령 1,2호기를 당장 폐쇄하여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- 정부는 미세먼지 심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금번 9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보다 과감한 석탄 감축 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

※ 문의 : 전력산업과 윤요한 과장 / 김동환 사무관(044-203-5153)